이슈

2019년 4월 3일 수요일

소로 > 등 제3055호

내가 왜 떴게?

→ Q

이젠 놀랍지도 않네



●뷔, 또 세계 미남 1등 : 방탄소년단 뷔가 세 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 자로 선정됐다. 뭐 새삼 스러울 것도 없다. 처음 이 아니니까. 이번엔 '더 베스트 폴'이란 곳 이다. 2018년 4월부터

무려 1년 동안 투표를 진행했는데 뷔는 전 세계 유명인사 150명 중 맨 위에 이름을 올 렸다. 뷔는 이미 미국, 불가리아 등 세계 각국의 자체 조사 투표에서 '잘 생긴 남 자', '매력적인 남자'로 1위에 오른 바 있 다. '다음 생애엔 나도 뷔처럼 …'하고 있 었는데 다음 생에서도 그른 것 같다.

먹방인도 운동한다



입짧은 햇님

먹방으로 유명한 1인 크리에이터 입짧은 햇 님이 SBS 파워FM '최 하정의 파워타임'에 출 연해 입담을 과시했다. 놀랍게도 먹방을 시작 하고 나서 체중이 17kg

●입짧은 햇님, 17kg :

이나 증가했다고. "예전엔 배구선수였다 면 지금은 유도선수"라고 했다. 엄청나게 먹는 대신 하루에 운동을 4시간씩이나 하 고 있다. '입짧은 햇님'이란 이름은 음식을 많이 먹지만 한 음식을 오래 먹지 못한다 고 친구들이 지어줬단다. 먹방의 비결도 결국은 운동이군요. 하아~ 4시간.

사이즈만 빼면 딱



김지우와 딸

●김지우, 붕 어빵 딸 : 배 우 김지우가 딸 루아나리 와 찍은 셀피 를 인스타그 램에 올렸다. 엄마와 딸은 얼굴을 맞댄 채 입술을 도 톰하게 내민

모습이다. 누리꾼들은 "완전 붕어빵"이라 며 신기해하고 있다. 자세히 보니 정말 닮 았다. 붕어빵 레귤러와 라지 사이즈.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TV 프로그램의 새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낚시 예능'



방송가에 낚시 예능의 열풍을 만든 '도시어부'의 한 장면. 진행자인 이경규(왼쪽)는 물론 배우 이태곤 등 연예계 '강태공'까지 참여하면서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물고기만 월척? 시청률도 월척!

채널A '도시어부' 빅히트 영향 타예능도 낚시 관련 소재 부각 또다른 낚시 예능 프로도 등장 새로운 접근 방식 고민도 필요

'물고기 낚으면 시청률도 낚는다!'

최근 방송가에 '낚시 열풍'이 불고 있 다.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가 화제몰이에 성공하면서 다른 프로그 램들도 물고기를 낚기 위해 속속 바다로 떠나고 있다. 이 같은 바람은 당분간 계 속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2017년 9월 시작한 '도시어부'는 낚시 와 예능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접목시

킨 '원조'다. 연기자 이덕화, 방송인 이 다. 2월 북마리아나 편에서 이태곤과 지 경규와 장도연이 함께 바다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겪는 좌절과 환호 등 다양한 감 정을 담아내며 보는 재미를 높인다. 물 고기가 미끼를 무는 순간을 기다리는 사 시를 하는 출연자들의 에피소드가 삽입 이 출연자들이 콩트처럼 주고받는 대화 도 웃음을 자아내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 는 새 낚시 예능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다. 덕분에 '도시어부'는 방송 5회 만에 동 시간대 종합편성채널 시청률 1위를 거머쥐는 등 시청률과 화제성 면에서 좋 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뒤이어 다른 예능프로그램도 낚시에 집중하고 있다. 정글 등 오지 생존기를

상렬의 낚시 경쟁으로 많은 분량을 꾸민 게 대표적인 예다. MBC '궁민남편' '공 복자들', SBS '미추리 8-1000' 등에도 낚 됐다. SBS에서는 5일 '전설의 빅 피쉬'라

교양·다큐프로그램에도 '낚시의 힘' 이 작용하고 있다. EBS '극한직업'의 심 예원 CP는 "해녀나 오징어잡이 배처럼 바다 특집은 다른 회차보다 시청률 등 반 응이 확실히 좋다"며 "시청자들의 대리 만족 심리를 충족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다루는 SBS '정글의 법칙'은 최근 출연 같다"고 설명했다. 모두, 물고기를 낚아 운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 - 진이 물고기를 낚는 장면을 부각하고 있 - 올리는 순간은 짧고 기다리는 시간은 길 - 했다.

어 '분량 챙길 것도 없는' 기피 소재로 취 급받아온 낚시 소재의 '재발견'인 셈이

이에 대해 정덕현 평론가는 "리얼리 티가 예능프로그램의 주류가 되면서 (물 고기를)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하나의 콘 텐츠가 됐다. 배 위에 오른 출연자들의 개성 강한 캐릭터, 물고기를 낚아 올린 뒤 이어지는 '먹방' 장면 등으로 풍성함 을 더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청자 관심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낚 시 예능'이 인기라고 이에 몰리는 것은 걱정스럽다"면서 "같은 소재라도 새로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축구장 유세 못막은 경남 FC '승점 감점' 최악은 피했다

상벌위, 제재금 2000만원 징계

유세 활동 막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타 정당 진입은 차단 규정 준수 노력 자유한국당 "구단·팬들께 깊이 사과"

결론은 제재금 2000만원이었다. '경기 장 선거 유세' 논란으로 한국프로축구연 맹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에 회부된 K리그1 경남FC가 가장 우려한 중징계를 피했다.

구회관에서 2019년도 제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K리그 4라운드 경남-대구FC전(3월 30일)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의 4.3 보궐선 거 유세와 관련해 경기장 관리 책임이 있는 경남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 렸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 은 물론, 국제축구연맹(FIFA)도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홀을 지적했다.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 은 점, 선거운동원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신문로 축 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 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 지 않은 점 등을 귀책사유로 판단했다.

하지만 구단의 제지 노력을 인정했다. 구단이 유세 활동을 제지한 사실을 확인했 상벌위는 징계의 근거로 구단의 관리 소 고,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방지하는 등 구단이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한 점과 소 수의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 들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점 등 을 참작 요인으로 들었다. 이를 근거로 상

벌위는 승점 감점, 무관중 경기 등 중징계 대신 제재금을 결정했다. 경남 구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선거관 리위원회 문의 결과, 선거법 위반이 없었 음을 확인했지만 경기장 선거운동 금지 내 용은 인지하지 못했다. 경남 구단은 연맹 규정을 성실히 집행했다"는 내용의 공문 을 구단에 전달했고,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경남에 내려진 징계 소식을 접한 뒤 "구단과 팬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구단 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해 (제 재금 부과)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은 자유한 국당의 공식 사과와 함께 향후 구단이 떠 안게 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과 적절 한 조치를 요구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SK·현대 재벌가 3세들 마약 상습 구매 파문

최윤원 SK케미칼 회장 아들 최모씨 대마 투약 사실 인정 구속영장 신청 현대가 3세 정모씨도 대마 구입 정황

SK, 현대 등 대그룹 오너가 3세들이 변 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구매한 혐의가 확인 되면서 재벌가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 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최윤원 SK케미 칼 회장 아들인 최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 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3~5월까지 마 약공급책 이모(28)씨에게 마약을 받고 15차 례 이상 고농축 액상 대마, 대마 쿠키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1일 오후 경 기 성남시 분당구 SK 계열사에서 긴급 체포 됐으며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마약류관 왔다. 최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 을 인정했다.

경찰은 또 공급책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 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인 현대가 3세 정모(28)씨도 같은 종류의 대 마 액상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 이다.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정씨를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씨는 한 달 전 해외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 는데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어 해외도 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언론 보도를 통해 봐주기 수사 의혹 이 제기된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

장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 대가 내사에 착수했다. 황씨는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 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후 무혐의 처분 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양유업은 2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 를 통해 "황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고, 황 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거 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오너 일 가 봐주기식 수사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전 혀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